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 - ‘인도주의’와 ‘문화적 인본주의’

VICTOR HUGO's *Notre-Dame de Paris* - ‘Humanitarianism’ & ‘Cultural humanism’

차 영 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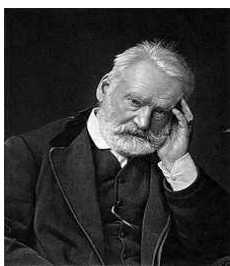
요약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의 ‘인도주의’와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문화적 인본주의’

I. 서론

많은 작품으로 변형 가능한 『노틀담의 꼽추』만이 지니고 있는 원작의 힘이 무엇인지 원전에 나타난 역사적 배경과 인본주의 사상을 살펴보겠다. 또 소설 원작이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라는 장르의 변화를 겪으면서 위고의 인도주의가 어떻게 콘텐츠 속에 수렴되어 ‘문화적 인본주의’를 실현하는지 관찰할 것이다.

II. 원작 『노틀담의 꼽추』의 ‘인도주의’



빅토르 위고가 『노틀담의 꼽추』 소설을 집필할 당시 프랑스 정황은 구체제(ancient regime) 하에서 귀족의 평민에 대한 폭압, 기독교의 광신적 배타주의, 종교 재판, 마녀사냥이 횡행하던 시기다. 또 신분적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남녀 간의 사랑의 갈등, 고

통스런 자기 변민과 열정으로 몸부림치던 시기다. 반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인쇄술 발명으로 중세기적 우주관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완전한 변혁의 시대로 인간 안에서 신의 존재를 찾는 인본주의 문예부흥 시대가 열리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15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휴머니즘에서 작품의 근본을 찾는 『노틀담의 꼽추』의 인도주의는,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다움(후마니오르(humanior))을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중세의 어두운 신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 15세기 시대배경은 또 자유롭게 사고를 펼치는 르네상스의 절정지지만 유럽에서는 집시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로, 그들이 때 지어 몰려드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사회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분방한 보헤미안 사상이 점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집시, 거지, 불법 채류자들 같은 소외계층뿐 아니라 범죄와 타락, 죄악, 쾌락, 욕망에 사로잡힌 창녀, 도적, 강도, 살인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의 시대 배경을 1482년, 15세기 중세의 옷으로 갈아입힌 것은 자신이 처한 19세기에 대한 풍자의 거리와 공간을 확보할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가 이 작품(1831년 출간)을 집필할 무렵은 1789년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다시 절대왕정체제로 돌아간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급사회가 여전히 잔존하면서 절망감을 나타내는 ‘시민이 자유주의를 갈망’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7월 혁명 이후다.

이런 역사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빅토르 위고 자신이 격동의 연속인 당시의 시대적 정신과 감정을 이입한 15세기 역사 소설은 여주인공과 계층이 서로 다른 5 남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 같지만, ‘다층적 사회와 다중적 인간 내면(미추, 선악, 성숙, 주종, 진위)’의 상충관계를 그리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발한다. 왜냐하면 시인 위고가 처한 당시의 역사의 위기를 지켜보며 무엇보다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인본주의로서 인간성 회복과 인간 존중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톨레랑스’의 개념은 ‘관용’보다는 ‘용인’으로 죄나 잘못을 덮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의미다. 시대를 불태웠던 마녀사냥(비극의 여주인공 에스메랄다의 죽음)과 종교재판의 근본에 ‘다름’을 수용하지 않는 철저한 계급사회의 부동적인 면과 무지를 드러내는 중세 교회 권력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빅토르 위고가 작품의 첫 장면을 대중적 광인 축제로 정한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인 사회적 불평등성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12월 25일 성탄절이나 정월 초하루나 아니면 주현절에 치러지는 축제의 자유의 시간 동안 하인은 주인이 되고 주인은 하인이 되면서 사회의 기존

가치와 위계질서가 뒤집히고 종교는 웃음거리”(“시대별 크리스마스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본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중심이 신은 아니었지만, 종교적 관점과 함께 신과 인간을 융합할 수 있는 자유·평등·박애라는 인권주의를 확립하면서 역설적으로 빅토르 위고는 교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강조한다. 인간을 제압하는 신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 안에 내재한 신성성을 되찾는, 『노틀담의 꼽추』의 핵심사상인 인본주의(안내천(人內天)사상)를 설교하면서 위고는 또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한, 절망하는 소외계층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와 같이 소설은 당시의 격변의 시대를 변혁의 기회로 맞이하기를 역설하면서 진보적 개혁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대표적 민중문학이라는 관점에서 180년이 지난 지금도 작품의 감동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설득력 있는 것은, 확고한 신념과 사회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위고 자신이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행동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노틀담의 꼽추』가 지속적으로 OSMU로 구성되는 것도 인간의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원작의 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 관점과 숭고한 사상을 담고 있는 강점을 지닌 원형콘텐츠 『노틀담의 꼽추』가 OSMU를 통해 재창조되고 확산되어 가면서 또 그렇게 탄생한 2차 콘텐츠로서 뮤지컬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둔 「노트르담드 파리」를 다루도록 하겠다.

Ⅲ.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의 ‘문화적 인본주의’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위고의 원전을 무대에 그대로 옮겨와 공연 관람에 익숙지 않은 관객에게 더 적극적이고 친밀하게 다가간다는 점이다.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중후한 시대정신을 원소스 멀티유저로 구현한 문화(역사·사회·심리)콘텐츠로서 진가를 발휘하도록 노래와 음악, 춤 등, 다양한 장르 간 융합을 시도한 종합예술이다. 즉, 서로 다른 장르의 이질적 화합의 상호의존을 통한 더 큰 시너지효과로 스토리텔링에 혁신을 꾀한 대중 아리아다.

18세기 이전 뮤지컬은 소수의 전유물이지만 18세기 이

후에는 하층민도 문화를 향유하며 19세기 이후부터는 빅토르 위고조차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오페라를 구상한다. 이런 관점에서 온갖 정열을 쏟아 부으며 작곡에 전념한 코치안테도 서슴없이 「노트르담드 파리」를 대중 오페라(people's opera)라 불렀다. 세련된 절제미로 예술성과 흥행성을 겸비하며 대중적 호소력이 있는 「노트르담드 파리」는 특히, ‘귀에 편안한 음악, 듣기 좋은 음악 위주의 팝 취향으로 편곡한 클래식’(‘세미클래식’, ‘팝클래식’, ‘클래식 팝’, ‘크로스오버’)으로, 일반인 모두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의 음악이다. 대중적인 ‘클래식컬한 분위기의 인스트루멘탈’ 음악을 세미클래식(semi classic)이라고 할 때, 세미클래식이란 정통 클래식의 육중함을 반으로 줄이면서 클래식 본연의 틀은 유지하되, 현대 감각에 적절히 어우러진 대중음악이다.



「노트르담드 파리」는 또 ‘중간음악’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대중화를 선도한 문화 콘텐츠’이며, 또 대중의 정서가 풍요롭도록 윤희를 하는 ‘문화적 인본주의’를 지향한다. 과거에 소수 특권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심미적 욕망을 대중이 만날 수 있고 또 인문학 특유의 실용성 회복을 지향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볼 때, 「노트르담드 파리」는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전 인류(whole of humanity)를 초대하고 있다. 위고 작품의 숭고한 사상을 쉽게 풀어서 대중에게 전파하는 모든 장르가 동원된 스토리텔링은 또 대중의 사고와 정서의 폭을 넓히는 문화적 르네상스 시대를 재탄생하게 한다.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원작의 역사적 배경과 위고의 인본주의를 콘텐츠 속에 수렴하면서 ‘문화적 인본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 원전을 OSMU로 스토리텔링한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는 사명감과 역사적식을 가진 프랑스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에서 나온 영감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참고 문헌 ■

- [1] 임승희, “시대별 크리스마스의 역사”, 주철민의 역사공부방, 2005.12.05.
- [2] Victor Hugo, Notre-Dame de Paris, pp. 472 Hachette, Paris, 2004.
- [3] 홍세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pp.323, 창작과비평사, 서울, 1995.